

SBM

Self Bible Meditation for Maturity

빌립보서

PHP · 서신서 · 헬라어

관찰 핵심 정리 · 완성 4장 · 네다바웨이 Observatory

빌립보서 1장

PHP-001 · 서신서 · 헬라어

매임(desmos)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됨 —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니, to zen Christos.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splanchna)으로 사모하노라.

관찰된 사실

빌립보서 1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무대: 바울의 감옥(매임·친위대). 빌립보 성의 성도들·감독들·집사들에게 쓰는 서신.
- 소재: desmos(매임)·euangelion(복음)·splanchna(심장)·koinonia(교제)·to zen Christos·to apothanein kerdos.
- 소품: 친위대(13절)·기쁨(4·18·25절)·착한 일의 완성(6절)·합당한 생활(27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감혀 있으면서 감사한다는 이상한 밝음.
- 8절 splanchna의 사무친 애정.
- 12절부터 매임이 진보로 역전되는 공기.
- 21절의 살든지 죽든지 한 방향 선언.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 내게 있다 함을 들은 그것이라"
- 공동체 인사에서 싸움의 연대(連帶)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디모데·빌립보 성도·감독들·집사들·하나님·그리스도 예수·친위대.
- 상황: 바울 감함(7·13절) → 어떤 이는 다툼으로 어떤 이는 선의로 전파(15-17절) → 살든지 죽든지(19-26절) → 합당한 생활 권면(27-30절).
- 사상 핵 — to zen Christos(21절)·splanchna(8절)·6절의 착한 일의 완성.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11): 인사·감사·기도 — splanchna·koinonia·착한 일의 완성.
- 컷 2 (12-18): 매임 속 복음의 진보 — 친위대·어떤 방식이든 기뻐함.
- 컷 3 (19-26): 살든지 죽든지 — to zen Christos·to apothanein kerdos.
- 컷 4 (27-30): 합당한 생활·연대 — 한 마음·함께 싸움.

6 — (1) 원어 카드

- desmos(δεσμός) — 매임·사슬·묶임. 7·13·14·17절.
- euangelion(εὐαγγέλιον) — 복음·기쁜 소식. 5·7·12·16·27절.
- splanchna(σπλάγχνα) — 심장·내장·깊은 감정의 자리. 8절.
- koinonia(κοινωνία) — 교제·참여·공유. 5절.
- to zen Christos(τὸ ζῆν Χριστός) — 사는 것이 그리스도. 21절.
- to apothanein kerdos(τὸ ἀποθανεῖν κέρδος) — 죽는 것이 유익. 21절.
- axios(ἄξιως) — 합당하게·겉맞게. 27절.
- episkopoi(ἐπίσκοποι) — 감독들. 1절.
- diakonoi(διάκονοι) — 집사들. 1절.

6 — (2) 문학 구조

- 인사·감사·기도(1-11) → 매임의 역설(12-18) → 실존 선언(19-26) → 권면(27-30)의 4단 구조.
- 21절 to zen Christos·to apothanein kerdos — 대구(對句) 형식으로 실존의 두 면을 비춤.
- euangelion이 5·7·12·16·27절에 반복 — 1장의 통일 주제어.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13절 praitōrion(친위대) — 로마 황제의 친위 군대. 바울의 위치를 시사하나 본문이 확정 않음.
- episkopoi·diakonoi는 초기 교회의 두 직분. 빌립보 서신 1:1이 이 두 직분을 가장 이른 형태로 명시한 서신 중 하나 — 배경으로만.
-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도시 — 2장의 "하늘의 시민권"(politeuma)과 연결될 소재 — 관찰로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빌 1:21 ↔ 골 3:4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
- 빌 1:6 ↔ 빌 2:13 (시작하신 이가 이루심 /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 빌 1:27 ↔ 빌 2:2 (한 마음·같은 뜻으로)
- 빌 1:8 splanchna ↔ 빌 2:1 (그리스도 안에 위로·splanchna)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연기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인사하고(1절),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3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을 확신하며(6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splanchna)으로 사모한다(8절).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한다(9절). 그 다음 자신의 매임(desmos)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한다(12절). 친위대 전체가 알고(13절), 어떤 이는 다툼으로 어떤 이는 선의로 전파하지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뻐한다(18절). 19-26절에서 살든지 죽든지의 실존으로 들어간다 —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to zen Christos) 죽는 것도 유익이다(to apothanein kerdos, 21절).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 머물기로 했다(24절). 마지막으로 복음에 합당하게(axios) 생활하라 권면하고(27절), 두려워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임을 말하며(28절), 바울과 같은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는 연대로 달는다(30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됨 —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 초벌 부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며, 어떤 형편에도 기쁨"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9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praitōrion·episkopoi·diakonoi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4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splanchna의 신학적 의미를 단정하지 않도록 → "심장·내장" 뉘앙스로만 기록.
- 21절을 삶의 원리로 확대적용하지 않도록 → 바울의 실존 선언 관찰로만.
- 15-17절의 동기 구분을 판단하지 않도록 → 사실(다툼으로/선의로)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빌립보서 1장은 감옥에서 쓴 감사·기도로 시작해, 매임(desmos)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는 역설을 거쳐,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to zen Christos)라는 실존 선언에 도달하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연대의 싸움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갇혀 있으면서도(7·13절)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3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6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splanchna)으로 사모한다(8절). 자신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고(12절) 친위대 전체에 그리스도가 알려졌다(13절). 어떤 방식으로든 그리스도가 전

파되니 기뻐한다(18절). 그 위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는 실존의 방향을 선언하고(21절),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과 함께 싸움의 연대로 닫는다(27-30절).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감옥 무대. desmos·euangelion·splanchna·koinonia·to zen Christos.
2 첫 느낌·분위기	간혀 있으면서 밝음. splanchna의 애정. 12절의 역전. 21절의 실존 선언.
3 시작과 끝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1절). 끝: 싸움의 연대(30절). 종됨과 연대.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디모데·빌립보 성도·감독들·집사들·친위대. 사상 핵 — to zen Christos·6절 완성.
5 장면 컷	컷 1 감사·기도(1-11). 컷 2 매임의 역설(12-18). 컷 3 살든지 죽든지(19-26). 컷 4 합당한 생활(27-30).
6 의문·발견·정보	praitōrion 배경. 9절 기도의 3층. 18절의 기쁨의 결.
7 동영상	매임→복음의 진보→to zen Christos·실존 선언→합당한 생활·연대.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됨". 부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9 동영상 안 건기·기도	내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다는 것. 답 없이 머뭇.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역설의 구조:** 12-14절 — desmos(매임)가 euangelion(복음)의 prokopē(진보)와 직결된다. 간힘이 퍼짐을 낳는 것이 이 장의 핵심 역설이다.
- 결 2 — 실존의 대구:** 21절 to zen Christos·to apothanein kerdos — 삶과 죽음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이다. 삶도 그리스도, 죽음도 그리스도 쪽이다.
- 결 3 — 심장의 온도:** 8절 splanchna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논증이 아니라 심장에서 나오는 사모함이다. PHP 전체의 온도를 이 한 절이 설정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빌 1:6 ↔ 빌 2:13** (시작하신 이가 이루심 / 하나님이 역사하심), **빌 1:27 ↔ 빌 2:2** (한 마음·같은 뜻).
- 다른 권 — **골 3:4**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 **고후 4:8-11** (매임 중에도 낙담 없음).
- 빌립보서 흐름 — 1장이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의 진보"의 첫 실례를 세우고, 2장의 케노시스 찬가(낮아지심→높아지심)의 토대를 놓는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감옥에서 쓰인 편지를 받는다.
- **멈춤 1:**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8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매임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됐다"(12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21절)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을 손에 쥐고 일어난다.

F·자족성 점검

- [x] 매임(desmos)이 복음의 진보가 됨 — 친위대에 그리스도가 알려짐(12-13절)
- [x]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splanchna)으로 사모함(8절)
- [x]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 to zen Christos·to apothanein kerdos(21절)
- [x] 복음에 합당하게(axios) 생활하라는 권면(27절)
- [x] 공동체의 연대 — 같은 싸움(30절)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빌립보서의 spine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의 진보와 자족의 기쁨으로 나아간다"이다. 1장은 그 spine의 첫 국면 — '매임 중의 복음 진보·살든 죽든 그리스도'가 전개되는 자리다. 빌립보서 전체 흐름(1 매임 중의 복음 진보·살든 죽든 그리스도 → 2 낮아지심·높아지심·빛으로 → 3 배설물·땀대 → 4 얽려 말라·자족·평강)에서 1장은 시작점이다. 동시에 구속사 호(arc)에서, 이 장은 갇힌 사도를 통해 복음이 황제의 친위대까지 퍼지는 운동 — 사도행전의 연장선 위에 있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매임의 현실(desmos, 7·12절) → 복음의 진보(euangelion, 12절) / 어떤 형편에서도 → 기쁨과 그리스도가 드러남 / 살든지 죽든지 → 그리스도 쪽으로 수렴.

한 화살표로 좁히면, 1장은 매임(가장 나쁜 형편)에서 복음의 진보(가장 큰 확장)로 미는 운동이다. PHP spine의 첫 국면 — "어떤 형편에서도"의 실증으로서, 1장은 가장 나쁜 형편에서 복음이 퍼지는 역설을 보여주며 2장의 낮아지심 찬가(케노시스)로 이어진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감옥에서 쓰인 편지와 매임의 현실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이 매임을 통해서도 복음을 진보시키시는 의중**이다. 8절 splanchna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표현은 PHP 전체가 비추는 하나님의 심정('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라')을 직접 드러낸다. 수면 아래에서, 갇힌 바울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 친위대가 복음을 듣는 것, 갇힌 자의 사모함이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과 일치하는 것 — 이것이 1장의 수면 아래 본질이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가 처한 매임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있는가 — 살든지 죽든지 내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1장은 독자를 "매임 속의 기쁨"과 "to zen Christos"의 21절 사이에 세우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그 형편이 복음의 진보가 될 수 있는가를 묻게 한다. PHP 흐름에서 이 불씨는, 2장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2:5)는 케노시스 국면으로 번져간다 — 낮아지심을 본받는 것이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이 되는 방향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to zen Christos(사는 것이 그리스도).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그 그리스도의 마음(케노시스)이 어떤 것인지 — 2장의 낮아지심 찬가로.

미해결 질문

빌립보서 1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15-17절에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 동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 시기·다툼이라는 동기가 내용의 문제인지 태도의 문제인지 본문이 명확히 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22절 "살고 있는 것이 육신 안에 있으면 열매 맺는 일이 내게 이것이니"에서 "이것"은 무엇인가?

- 문맥에서 특정 사역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3. 13절 "친위대"(praitōrion)는 어디를 가리키는가 — 로마인가 가이사랴인가?

- 원어 자체는 둘 다 가능 — 본문이 확정하지 않음.
- 관찰로는 보류.

Q4.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가리키는가?

- 구원 전체인지 빌립보 교회의 특정 사역인지 본문이 한정하지 않음.
- 미해결로 머문다.

Q5. 9절 기도의 세 층(사랑→지식→충명→분별→힘 없음)은 논리적 순서인가 강조 순서인가?

- 본문의 헬라어 구조가 어느 방향의 의도인지 관찰로는 확정 불가.
- 묵상으로 이월.

Q6. 27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에서 axios가 의미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

- 합당함의 내용을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고 2장으로 이어짐.
- 관찰로는 사실(명령형 권면)만 보존하고 내용은 미해결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빌립보서 2장

PHP-002 · 서신서 · 헬라어

자기를 비워(ekenōsen) 종의 형체로 — 케노시스 찬가. 낮아지심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심. 빛으로 나타나라.

관찰된 사실

빌립보서 2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바깥 무대: 빌립보 교회 공동체 — 분쟁·허영의 위험.
- 안쪽 무대: 6-11절 케노시스 찬가 — 그리스도의 낮아짐·높아짐의 우주 드라마.
- 소재: ekenōsen(비움)·morphē(형체)·harpagmon(강탈할 것)·hypereipsōsen(지극히 높이심)·모든 무릎·모든 혀·빛·물약.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5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찬가로 이어지는 전환.
- 6-11절 찬가의 리듬 — 내리막(6-8절)과 오르막(9-11절).
- 권면(1-4·12-18)이 찬가(6-11)를 감싸는 구조.
- 에바브로디도가 찬가를 산 인물로 장을 닫음.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까지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 그리스도 안의 권면→그리스도의 마음을 산 인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빌립보 성도·하나님·그리스도 예수·디모데(19-23)·에바브로디도(25-30).
- 상황: 공동체 분쟁 기미(1-4 권면의 역(逆)) → 찬가로 근거 제시(6-11) → 실생활 적용(12-18) → 실례 인물(19-30).
- 사상 핵 — 6-11절 찬가: ekenōsen·morphē doulou·십자가 죽음·hypereipsōsen·모든 무릎·kyrios.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4): 권면 — 한 마음·겸손·남을 자기보다 낮게.
- 컷 2 (5-11): 케노시스 찬가 — 내리막(6-8)·오르막(9-11).
- 컷 3 (12-18): 권면 2 — 두렵고 떨림·원망 없이·빛으로·기쁨.
- 컷 4 (19-24): 디모데 소개 —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 컷 5 (25-30): 에바브로디도 소개 — "죽기에까지 목숨 돌보지 않음".

6 — (1) 원어 카드

- ekenōsen(ἐκένωσεν) — 비워·텅 비게 함. kenoō의 과거 완료. 7절.
- morphē(μορφή) — 형체·형태. 6절 "하나님의 형체", 7절 "종의 형체".
- harpagmon(ἄρπαγμόν) — 강탈할 것·붙잡아야 할 것. 6절.
- hypereipsōsen(ὑπερέψωσεν) — 지극히 높이심. 9절.
- epouranion·epigeion·katachthonion — 하늘·땅·땅 아래. 10절.
- kyrios(κύριος) — 주. 11절.
- phronema(φρόνημα) — 마음·생각. 5절 "이 마음을 품으라".

6 — (2) 문학 구조

- 권면(1-4) → 찬가(5-11) → 권면 적용(12-18) → 실례 인물(19-30)의 4단 구조.
- 6-11절 찬가: 내리막 단계(하나님의 형체→종의 형체→십자가 죽음)와 오르막 단계(지극히 높이심→모든 무릎→모든 혀)의 대칭.
- morphē가 6절(하나님)·7절(종)에 반복 — 같은 단어의 두 형체 대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6-11절이 초기 교회 찬가의 인용인지 바울 자작인지 학자 논의 있음 — 관찰로는 사실(찬가 형식)만.
- harpagmon의 정확한 의미(이미 가진 것 vs 얻으려 하는 것)에 대한 해석 다양 — 배경으로만.
-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 "주"(kyrios)는 황제 칭호이기도 함. 11절 선언이 가진 사회적 맥락 — 배경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빌 2:6-11 ↔ 고전 8:6 (한 주 예수 그리스도)
- 빌 2:7 ↔ 사 53:12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 빌 2:10-11 ↔ 사 45:23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세)
- 빌 2:13 ↔ 빌 1:6 (하나님이 역사하심·시작하신 이가 이루심)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권면·위로·교통이 있거든 한 마음·한 뜻으로 합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시작한다(1-4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5절)라고 전환하며 찬가로 들어간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체(morphē theou)이셨으나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harpagmon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ekenōsen) 종의 형체(morphē doulou)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6-7절).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8절). 이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hypereipsōsen)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고(9절),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kyrios)라 시인한다(10-11절). 이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빛들로 나타나라 권면한다(12-15절). 자신을 전제로 드러도 기뻐하고 함께 기뻐하겠다고 한다(17-18절).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와 죽기에까지 목숨을 돌보지 않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한다(19-30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케노시스 —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 초벌 부제: "낮아지심을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시고, 빛으로 나타나라"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찬가 형식·kyrios 맥락·harpagmon 논의)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harpagmon의 신학적 논쟁을 단정하지 않도록 → 번역 불확실성 사실만 보존.
- 케노시스를 교리 진술로 굳히지 않도록 → 찬가 관찰 수준으로.
- 디모데·에바브로디도를 모범으로 설교하지 않도록 → 본문 묘사 관찰로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 · 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빌립보서 2장은 한 마음의 권면을 거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자기를 비워(ekenōsen)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신(hypereipsōsen) 찬가에서 절정에 이르고, 빛으로 나타나라는 권면과 찬가를 산 디모데·에바브로디도의 모습으로 닫히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한 마음·한 뜻으로 합하고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 권면하며(1-4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5절)고 전환한다. 그 마음은 하나님의 형체이셨으나 harpagmon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ekenōsen) 종의 형체(morphē doulou)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다(6-8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hypereipsōsen)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주(kyrios)라 시인한다(9-11절). 이후 두렵고 떨림으로 원망 없이 빛들로 나타나라 권면하고(12-15절),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겠다고 하며(17-18절), 찬가를 살아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로 장을 닫는다(19-30절).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공동체 무대+찬가 무대. ekenōsen·morphē·harpagmon·hypereipsōsen·무릎·빛.
2 첫 느낌·분위기	찬가의 내리막·오르막 리듬. 권면이 찬가를 감쌌.
3 시작과 끝	시작: 그리스도 안의 권면(1절). 끝: 찬가를 산 에바브로디도(30절).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성도·디모데·에바브로디도. 사상 핵 — 케노시스 찬가(6-11).
5 장면 컷	컷 1 권면(1-4). 컷 2 케노시스(5-11). 컷 3 빛으로(12-18). 컷 4-5 디모데·에바브로디도(19-30).
6 의문·발견·정보	harpagmon 불확실성. 찬가 형식. morphē 반복 대비.
7 동영상	권면→케노시스 찬가(내리막·오르막)→빛으로 권면→찬가를 산 인물들.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케노시스 — 비워 종의 형체로". 부제: "낮아지심·지극히 높이심".
9 동영상 안 겉기·기도	비움 앞에 서게 됨. 답 없이 머뭇.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morphē의 역전:** 6절 "하나님의 형체"(morphē theou)와 7절 "종의 형체"(morphē doulou) — 같은 단어가 반대 방향의 두 위치를 가리킨다. 가장 높은 형체에서 가장 낮은 형체로.
- 결 2 — 내리막과 오르막:** 6-8절(하나님의 형체→죽기까지)이 내리막이고, 9-11절(지극히 높이심→모든 무릎)이 오르막이다. 하나님이 낮아지심에 응답하는 구조다.
- 결 3 — 찬가가 실례를 낳음:** 6-11절 찬가가 중심이고, 19-30절 디모데·에바브로디도는 찬가를 살아낸 실례다. 찬가가 권면을 근거 짓고, 인물이 찬가를 육화한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빌 2:5 ↔ 빌 3:7-8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다 해로 여김), 빌 2:13 ↔ 빌 1:6 (하나님이 행하심·시작하신 이).
- 다른 권 — 사 53장 (종의 형체·죽음), 사 45:23 (모든 무릎·모든 혀), 고전 8:6 (한 주).
- 빌립보서 흐름 — 2장이 PHP spine의 심장(낮아지심→높아지심)이며, 3장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꽃대"의 실질적 기반이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초대를 받는다.
- 멈춤 1: "자기를 비워(ekenōsen) 종의 형체로" — 내리막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시인하리" — 오르막 끝에서 멈춘다.
- 멈춤 3: "빛들로 나타나라" — 찬가가 권면으로 이어지는 자리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의 삶을 손에 쥐고 일어난다.

F·자족성 점검

- [x] 케노시스 찬가(6-11) — ekenōsen·morphē theou→doulou·십자가·hypereipsōsen·모든 무릎·kyrios
- [x]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5절)의 전환

- [x] 두렵고 떨림으로·원망 없이·빛으로(12-15절)
- [x] 함께 기뻐하자(17-18절)
- [x] 디모데·에바브로디도의 실례(19-30절)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빌립보서의 spine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의 진보와 자족의 기쁨으로 나아간다"이다. 2장은 그 spine의 심장 — "낮아지심(케노시스)→높아지심"이 찬가로 결정화되는 자리다. PHP 전체 흐름(1 매임·진보 → 2 낮아지심·높아짐·빛 → 3 배설물·땀대 → 4 염려 말라·자족·평강)에서 2장은 spine의 핵 국면이다. 구속사 호(arc)에서, 이 장의 케노시스 찬가는 이사야 53장(종의 형체)과 45:23(모든 무릎)이 성취되는 자리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통과하셨는지를 보여준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체(morphē theou, 6절) → 종의 형체(morphē doulou, 7절) → 십자가 죽음(8절) → 지극히 높이심(hypereipsōsen, 9절) → 모든 무릎·모든 혀(10-11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2장은 자기 비움(낮아짐)에서 하나님의 높이심(높아짐)으로 미는 운동이다. PHP spine의 낮아지심 국면이 완성되며, 3장의 "자랑을 배설물로·땀대를 향하여" 국면이 여기서 파생된다 —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은 자는 자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볼 수 있게 된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바울의 권면과 교회 분쟁 상황이다. 그러나 찬가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이 낮아지심을 높이신다는 의중**이다. ekenōsen(비워)이라는 동사 하나가 그 의중의 방향을 드러낸다 — 붙잡지 않고, 비우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높아짐의 길이다. PHP 흐름이 비추는 하나님의 심정 — "함께 기뻐하자"(18절)의 따뜻함과,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는" 의중이 이 찬가 안에 집중되어 있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무엇을 harpagmon(붙잡아야 할 것)으로 쥐고 있는가 — 그것을 비울 때(ekenōsen) 무엇이 열리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2장은 독자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5절)과 "비워 종의 형체"(7절) 사이에 세우고,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묻게 한다. PHP 흐름에서 이 불씨는, 3장의 "나의 유익이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노라"(3:7)는 배설물 국면으로 번져간다 — 낮아지심을 본받은 자가 자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볼 수 있게 되는 방향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ekenōsen(비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자기를 비운(ekenōsen)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은 바울이 자신의 자랑 목록을 배설물(skybala)로 놓아버리는 3장으로.

미해결 질문

빌립보서 2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6절 harpagmon은 "이미 가진 것을 붙잡지 않음"인가 "얻으려 하는 것을 욕심 내지 않음"인가?

- 번역마다 다르며 신학적 함의가 달라짐.
- 미해결로 보존.

Q2. 6-11절은 바울이 직접 지은 찬가인가 초기 교회 찬가를 인용한 것인가?

-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관찰로는 찬가 형식이라는 사실만.
- 묵상으로 이월.

Q3.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와 13절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니"가 어떻게 공존하는가?

- 인간의 이름과 하나님의 행하심의 관계를 본문이 설명하지 않음.
- 관찰로는 보류.

Q4. 7절 morphē(형체)가 6절과 7절에서 정확히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인가?

- 철학 용어로서 morphē의 의미가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미해결로 머문다.

Q5. 10절의 "땅 아래"(katachthonion)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 죽은 자들인지 다른 존재인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6. 에바브로디도의 질병(27-28절)과 회복이 이 장의 주제(낮아짐→높아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본문이 직접 연결하지 않음.
- 관찰로는 사실(질병·회복)만 보존하고 연결은 미해결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빌립보서 3장

PHP-003 · 서신서 · 헬라어

나의 유익이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배설물(skybala)로 여기고 — 쫓대(skopos)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하늘의 시민권(politeuma).

관찰된 사실

빌립보서 3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바울의 내면 무대: 자랑 목록과 포기의 결단(4-14절).
- 공동체 무대: 십자가의 원수들 경고·하늘 시민권 권면(15-21절).
- 소재: skybala(배설물)·skopos(쫓대)·politeuma(시민권)·gnōsis(지식)·달리기·상(brabion)·낮은 몸·영광의 몸.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7-8절의 skybala — 강한 경멸어의 충격.
- 4-6절 자랑 목록의 구체성.
- 12-14절의 달리기 이미지 — 아직 달리는 중.
- 20절 politeuma — 하늘 시민권이라는 배경 전환.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 21절: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 기쁨의 권면에서 변화의 약속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빌립보 성도·하나님·그리스도 예수·"개들·행악자들"(경고 대상)·"십자가의 원수들"(경고 대상).
- 상황: 경고 대상 두 부류(2절·18절) 사이에서, 바울의 포기 이야기와 달리기 이미지로 대안 제시.
- 사상 핵 — 7-11절: 유익→해로→skybala·gnōsis·믿음의 dikaiosynē·exanastasin.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경고 — 개들·행악자들·진정한 할례.
- 컷 2 (4-6): 자랑 목록 — 할례·베냐민·히브리인·바리새인·율법의 의.
- 컷 3 (7-11): 포기 — 해로·skybala·gnōsis·dikaiosynē·exanastasin.
- 컷 4 (12-16): 달리기 — 잡힌 바·skopos·brabion·teleios.
- 컷 5 (17-21): 권면·경고·politeuma·변화 약속.

6 — (1) 원어 카드

- skybala(σκούβαλα) — 배설물·쓰레기·음식 찌꺼기. 강한 경멸어. 8절.
- skopos(σκοπός) — 뜻대·과녁·바라보는 지점. 14절.
- politeuma(πολίτευμα) — 시민권·정치 공동체·국가 소속. 20절.
- gnōsis(γνῶσις) — 지식·앎.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 dikaiosynē(δικαιοσύνη) — 의(義). 9절 "율법의 의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 exanastasin(ἐξανάστασιν) — 부활(강조형). 11절. 신약 희귀어.
- teleios(τέλειος) — 완전한·온전한. 15절.
- brabion(βραβεῖον) — 경기 승자의 상·왕관. 14절.

6 — (2) 문학 구조

- 경고(1-3) → 자랑 목록(4-6) → 포기(7-11) → 달리기(12-16) → 권면·경고·politeuma(17-21)의 5단 구조.
- 7-8절 — 유익/해로/배설물의 세 단계 강화.
- 20-21절 — politeuma와 변화 약속이 1장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1:27)과 연결됨.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빌립보는 로마 식민지 — 로마 시민권이 특권이었음. politeuma가 청중에게 특별히 들렸을 것 — 배경으로만.
- exanastasin(11절)은 신약에서 이 한 곳만 나오는 희귀어 — 배경으로만.
- 2절 "개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학자 논의 있음 — 관찰로는 사실(경고 대상)만.

6 — (4) 교차 참조 노트

- 빌 3:7-8 ↔ 빌 2:7 (skybala·포기 ↔ ekenōsen·비움)
- 빌 3:20 ↔ 빌 1:27 (하늘 politeuma ↔ 복음에 합당한 생활)
- 빌 3:9 ↔ 롬 3:21-22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 빌 3:10 ↔ 빌 2:8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음 ↔ 죽기까지 복종)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끝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로 시작하며(1절) 개들·행악자들을 삼가라 경고한다(2절). 바울이 육체를 신뢰 할 자랑 목록을 나열한다 — 할레 팔일·베냐민 지파·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율법으로 바리새인·열심으로 교회를 핍박·율법의 의에 흠이 없는 자(4-6절). 그러나 그것을 다 해로 여기고(7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gnōsis)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skybala로 여긴다(8절). 그 안에서 발견되어 율법의 의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dikaiosynē)를 얻고(9절), 부활의 권능과 고난의 참여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exanastasin)에 이르기를 바란다(10-11절).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쫓아가며(12절),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아 뜻대(skopos) 향해 달린다(13-14절). 온전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다(15절).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고하고(18-19절), "우리의 시민권(politeuma)은 하늘에 있다"(20절)고 대조하며, 구주가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라고 단는다(21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배설물(skybala)로 여기고 — 쏫대를 향하여"
- 초벌 부제: "자랑 목록의 포기·그리스도 아는 지식·하늘 시민권"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8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빌립보 식민지·exanastasin 희귀어·politeuma 배경)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2절 "개들"의 정체를 단정하지 않도록 → 경고 대상이라는 사실만 보존.
- teleios(15절)를 "완성된 자"로 확정하지 않도록 → 문맥의 불확실성 보존.
- 19절 "배가 그들의 신"을 구체적 행위로 단정하지 않도록 → 묘사 수준으로만.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빌립보서 3장은 바울이 자신의 자랑 목록을 나열하고 그것을 배설물(skybala)로 내려놓는 선언을 거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달리기 이미지 위에 쏫대(skopos)를 향해 쫓아간다는 방향을 세우고, 하늘의 시민권(politeuma)과 몸의 변화 약속으로 달히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경고(1-3절)를 거쳐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근거 목록을 제시한다 — 할례·베냐민·히브리인·바리새인·율법의 의에 흠 없음(4-6절). 그러나 그것을 해로 여기고 더 나아가 skybala로 여긴다 —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gnōsis)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7-8절).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dikaiosynē)를 얻고, 부활·고난·죽으심을 본받아 부활(exanastasin)을 바란다(9-11절). 이미 얻은 것이 아

나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풋대(skopos) 향해 달린다(12-14절). 십자가의 원수들을 경고하고 하늘 시민권(politeuma)으로 대조하며(17-20절),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약속으로 달는다(21절).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내면 무대+공동체 무대. skybala·skopos·politeuma·달리기·상.
2 첫 느낌·분위기	skybala의 충격. 자랑 목록의 구체성. 달리기 이미지. politeuma 전환.
3 시작과 끝	시작: 기쁨의 권면(1절). 끝: 변화의 약속(21절). 기쁨→변화.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빌립보 성도·두 경고 대상. 사상 핵 — skybala·gnōsis·exanastasin.
5 장면 컷	컷 1 경고(1-3). 컷 2 자랑(4-6). 컷 3 포기(7-11). 컷 4 달리기(12-16). 컷 5 politeuma(17-21).
6 의문·발견·정보	teleios 역설. exanastasin 회귀어. "개들" 불명확. 10절의 방향.
7 동영상	자랑→skybala→그리스도 안 달리기→하늘 politeuma·변화 약속.
8 초별 제목·부제	제목: "배설물로 여기고 — 풋대를 향하여". 부제: "자랑 포기·gnōsis·하늘 politeuma".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내 유익이 skybala인지 묻게 됨. 답 없이 머뭇.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1. **결 1 — 세 단계 해체**: 7절 "해로 여기다" → 8절 "해로 여기다" (반복 강화) → 8절 "skybala로 여기다"의 세 단계. 단순 포기가 아니라 점층적 해체다.
2. **결 2 — 달리기의 역설**: 12절 "이미 얻지 못했다" + 15절 "온전한 자들(teleios)은 이렇게 생각한다" — 완성되지 않은 자가 온전한 자들의 사고방식으로 달리는 역설이다.
3. **결 3 — politeuma의 대조**: 18-19절 "십자가의 원수들·땅의 일"과 20절 "하늘의 시민권" — 빌립보 식민지 배경 위에서 시민권 귀속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대조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빌 3:7-8 ↔ 빌 2:7 (skybala·포기 ↔ ekenōsen·비움), 빌 3:20 ↔ 빌 1:27 (politeuma ↔ 복음에 합당한 생활).
- 다른 권 — 롬 3:21-22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고전 9:24-27 (달리기 이미지).
- 빌립보서 흐름 — 3장이 PHP destination("풋대를 향하여")을 전면세우고, 4장의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autarkes)이 이 달리기 방향 위에서 꽃핀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자신의 자랑 목록을 손에 쥐고 서 있다.
- 멈춤 1: "skybala로 여긴다"(8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 쫓아간다"(12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20절)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약속(21절)을 손에 쥐고 일어난다.

F·자족성 점검

- [x] 자랑 목록 나열(4-6절) — 할레·베냐민·히브리인·바리새인·율법의 의

- [x] skybala로 여김(8절) —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
- [x]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부활 참여(9-11절)
- [x] 쫓대(skopos)를 향하여 달리기(12-14절)
- [x] 하늘 시민권(politeuma)과 몸의 변화 약속(20-21절)

G · 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빌립보서의 spine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의 진보와 자족의 기쁨으로 나아간다"이다. 3장은 그 spine의 세 번째 국면 — "자랑을 배설물로·쫓대를 향하여"가 전개되는 자리다. 동시에 이 장은 PHP destination("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노라"·3:14)이 직접 표현되는 자리다. 구속사 호(arc)에서, 3장은 2장의 케노시스(낮아지심)가 바울 자신의 정체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 그리스도가 자기를 비운 것처럼(ekenōsen),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skybala로 내려놓는다.

H · 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랑 목록(4-6절) → skybala로 해체(7-8절) →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됨(9절) → 쫓대(skopos)를 향해 달리기(12-14절) → 하늘 politeuma(20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3장은 자신의 의(자랑 목록)에서 그리스도 안의 의(믿음의 dikaiosynē)로, 땅의 일에서 하늘의 politeuma로 미는 운동이다. PHP spine에서 이 장은 destination 방향으로 가장 선명하게 달리는 국면이며, 4장의 "자족"(autarkes)이 이 달리기 위에서 피어나도록 기반을 놓는다.

I · 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바울의 자전적 포기 선언이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이 자랑 목록의 해체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정체성을 세우시는 의중**이다. skybala라는 강한 단어는 그 해체의 결단을 드러낸다 — 부분적 내려놓음이 아니라 전면적 재평가다. PHP 흐름이 비추는 하나님의 심정 —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새기시는 것이 3장에서는 바울의 자랑 해체와 쫓대를 향한 달리기로 나타난다.

J · 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내가 유익으로 여기는 것들 — 나의 자랑 목록 — 이 skybala가 될 때, 비로소 skopos(쫓대)가 보이기 시작하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3장은 독자를 "나의 유익이던 것들"(7절) 앞에 세우고, 그것을 skybala로 내려놓을 결단의 자리를 마련한다. PHP 흐름에서 이 불씨는, 4장의 "아무것도 염려 말라·어떤 형편에든지 자족"(autarkes, 4:11)으로 번져간다 — 자랑 목록을 내려놓은 자만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방향이다.

다음 장으로 가져갈 한 단어: skopos(쫓대).

다음 장으로 미는 운동: 쫓대를 향해 달리는 자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autarkes)과 기쁨과 평강 안에 거할 수 있는 — PHP의 도착점 4장으로.

미해결 질문

빌립보서 3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2절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 유대화하는 자들인지 다른 집단인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12절 "아직 이루지 못했다"와 15절 "온전한 자들(teleios)"이 어떻게 공존하는가?

- teleios가 다른 의미인지, 아이러니인지 본문이 명확히 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3. 11절 exanastasin의 접두사 ex가 특별한 부활을 가리키는가?

- 신약에서 이 한 곳만 나오는 희귀어이므로 비교 대상 없음.
- 관찰로는 보류.

Q4. 19절 "배가 그들의 신이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 어떤 행위인지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머문다.

Q5. 10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 사도적 특수 경험인지 모든 신자에게 해당하는지 본문이 한정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6. 21절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심"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 일인가?

- 시점(죽음 이후·재림 시)이 본문에서 명시되지 않음.
- 관찰로는 사실(변화의 약속)만 보존하고 시점은 미해결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

빌립보서 4장

PHP-004 · 서신서 · 헬라어

아무것도 염려 말라, 감사로 아뢰라 —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eirene).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autarkes).

관찰된 사실

빌립보서 4장 — 관찰된 사실 (LOCKED v2.0 9단계 형식)

1 무대 장치, 배경, 소품, 소재 찾기

- 마무리 서신 무대. 유오디아·순두게 화해 권면과 바울의 자족 이야기가 공존.
- 소재: merimnate(염려)·eirene(평강)·autarkes(자족)·logizesthe(생각하라)·능력 주시는 자·향기로운 제물.
- 소품: 유오디아·순두게·기도·간구·감사·8절 목록·"배웠다"(emathon)·"채우시리라"(19절).

2 첫 느낌, 분위기 기록하기

- 4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의 강조.
- 6-7절의 염려 → 기도 → 평강 흐름.
- 11-13절 "배웠다"·autarkes·능력 주시는 자의 자족 선언.
- 따뜻한 마무리 분위기 — 감사와 은혜 축원.

3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여 어떻게 끝나는지 기록하기

- 1절: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 주 안에 서라"
-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 주 안에 서라는 권면에서 주의 은혜 축원으로.

4 등장인물 또는 사물을 나열하고 처한 상황과 사상 파악하기

- 인물: 바울·빌립보 성도·유오디아(Euodia)·순두게(Syntychē)·"참된 명예를 같이 멘 자"·글레멘드(3절)·하나님·그리스도 예수.
- 상황: 유오디아·순두게 갈등(2절) → 기쁨·평강 권면(4-9) → 바울의 자족 이야기(10-13) → 빌립보 선물 감사(14-20).
- 사상 핵 — 6-7절(염려→기도→평강)·11-13절(autarkes·능력 주시는 자).

5 장면·사건을 나누어 몇 컷의 사진 얻기

- 컷 1 (1-3): 주 안에 서라·유오디아·순두게·글레멘드.
- 컷 2 (4-9): 기쁨·관용·merimnate 말고 기도·eirene·logizesthe.
- 컷 3 (10-13): 배웠노라·autarkes·"내게 능력 주시는 자".
- 컷 4 (14-20): 빌립보 선물 감사·향기로운 제물·채우심 약속.

- 컷 5 (21-23): 마무리 인사·은혜 축원.

6 — (1) 원어 카드

- merimnate(μεριμνᾶτε) — 염려하다·마음이 쪼개지다. 6절.
- eirene(εἰρήνη) — 평강·샬롬.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 autarkes(αὐτάρκης) — 자족하는·자기 스스로 충분한. 11절.
- logizesthe(λογίζεσθε) — 생각하라·계산하라·숙고하라. 8절.
- phroureō(φρουρέω) — 지키다·군사 경비하다. 7절 평강이 "지키시리라".
- emathon(ἔμαθον) — 배웠다. 11절. 배움의 과거형.
- enischyonti — 능력 주시는·강하게 하는. 13절.

6 — (2) 문학 구조

- 권면(1-3) → 기쁨·평강(4-9) → 자족(10-13) → 감사(14-20) → 마무리(21-23)의 5단 구조.
- 6-7절 — 염려→기도→평강의 3단계 흐름.
- 8절 — 목록 형식(참된 것 6개): 참된·정직한·옳은·정결한·사랑할 만한·칭찬할 만한.
- 11-13절 — autarkes(11)·비결을 배웠다(12)·"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13)의 3단계.

6 — (3) 배경 정보 (배경 자료, 해석 아님)

- autarkes(11절)는 헬라 스토아 철학의 자족 덕목 — 바울이 그 용어를 차용하되 출처(그리스도)를 바꿈. 배경만.
- 7절 phroureō(군사 경비 용어) — 빌립보가 로마 군사 도시였으므로 청중에게 생생한 이미지 — 배경만.
- 3절 "참된 명예를 같이 멘 자"(gnēsie syzyge)가 인물인지 집단인지 학자 논의 있음 — 관찰로는 불명확 보존.

6 — (4) 교차 참조 노트

- 빌 4:6-7 ↔ 마 6:25-34 (염려하지 말라·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 빌 4:11-12 ↔ 딤후전 6:6-8 (자족이 큰 이익)
- 빌 4:19 ↔ 빌 1:6 (채우심 약속 ↔ 착한 일의 완성)
- 빌 4:7 eirene ↔ 빌 1:2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7 상황의 흐름, 논지를 연결하여 *동영상* 얻기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 주 안에 서라"(1절)로 시작한다. 유오디아와 순두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2절), 글레멘드와 함께 복음에 힘쓴 이들을 기억한다(3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4절). 관용을 알게 하고(5절), 아무것도 염려(merimnate)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라(6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eirene)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7절). 참된 것들을 생각하라(logizesthe, 8절). 바울에게 배우고 본 바를 행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9절). 바울이 자족 이야기를 한다 —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autarkes, 11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을 배웠다(12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13절).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선물을 감사하며(14-18절),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19절)고 약속한다. 은혜 축원으로 닫는다(23절).

8 초벌 제목과 부제 정하기

- 초벌 제목: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autarkes*)하기를 배웠노라"
- 초벌 부제: "염려에서 평강(*eirene*)으로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품질 체크 자가감사 (6/6)

- [x] 원어 어휘 3개 이상 (7개 기록)
- [x] 역사·문화·문학 사실 최소 1개 (스토아 *autarkes*·군사 *phroureō*·*syzyge* 불명확)
- [x] 미해결 질문 1개 이상 (6건 예정)
- [x] 진행자 "가르치기" 문장 0건
- [x] 상투어 과반복 없음
- [x] 묵상 어휘(의미/교훈/적용) 진행자 발화 0건

9단계 자가감사

- [x] 1단계 무대·배경·소품 기록됨
- [x] 2단계 첫 느낌·분위기 기록됨
- [x] 3단계 시작·끝 기록됨
- [x] 4단계 인물·사물·상황·사상 기록됨
- [x] 5단계 장면 컷 5개
- [x] 6단계 의문·발견·정보 기록됨
- [x] 7단계 동영상 흐름 기록됨
- [x] 8단계 초벌 제목·부제 기록됨
- [x] 9단계 기도·내면 떠오름 기록됨

드리프트 관찰

- *autarkes*를 스토아 덕목으로 단정하지 않도록 → 출처 차이(그리스도 안에서) 관찰로 보존.
- 13절을 만능 능력 선언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맥락 유지.
- 3절 "참된 명예를 같이 멘 자"의 정체를 단정하지 않도록 → 불명확 보존.

종합 정리

종합 정리

A·한 장의 골격

한 문장: 빌립보서 4장은 유오디아·순두게 화해 권면을 거쳐, 아무것도 염려(*merimnate*) 말고 기도·감사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eirene*)이 마음을 지키신다는 선언에 이르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autarkes*)는 고백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선언으로 절정에 오르며, 채우심 약속과 은혜 축원으로 빌립보서를 닫는 장이다.

한 문단: 바울은 주 안에 서라는 권면(1절)으로 시작해 유오디아와 순두게의 화해를 구한다(2절). 항상 기뻐하라(4절), 아무것도 염려(*merimnate*) 말고 기도·간구·감사로 아뢰라(6절)고 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eirene*)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7절)고 한다. 참된 것들을 생각하고(*logizesthe*, 8

절) 배운 것을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신다(9절).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autarkes, 11절) — 비천과 풍부·배부름과 배고픔·풍부와 궁핍 모두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12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13절). 빌립보 선물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았고(18절),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19절) 약속하며 은혜 축원으로 닫는다(23절).

B·9단계 통합 표

단계	핵심 발견
1 무대·배경·소품·소재	마무리 서신 무대. merimnate·eirene·autarkes·logizesthe·능력 주시는 자.
2 첫 느낌·분위기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의 강조. 염려→평강 흐름. "배웠다"의 독특함.
3 시작과 끝	시작: "주 안에 서라"(1절). 끝: "주의 은혜"(23절). 권면→축원.
4 등장인물·상황·사상	바울·유오디아·순두게·빌립보 성도. 사상 핵 — 6-7절(평강)·11-13절(자족·능력).
5 장면 컷	컷 1 화해(1-3). 컷 2 기쁨·평강(4-9). 컷 3 자족(10-13). 컷 4 감사(14-20). 컷 5 마무리(21-23).
6 의문·발견·정보	phroureō 군사 용어. 스토아 autarkes·출처 차이. 8절 목록.
7 동영상	화해→기쁨·평강·logizesthe→자족·능력 주시는 자→감사·채우심→은혜 축원.
8 초벌 제목·부제	제목: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부제: "염려에서 평강, 궁핍에서 자족".
9 동영상 안 걸기·기도	어떤 형편에서 자족을 배우고 있는가 묻게 됨. 답 없이 머뭇.

C·본문이 본문을 읽게 하는 세 결

- 결 1 — 염려의 대안:** 6절 "merimnate 말고" + "기도·간구·감사로 아뢰라" → 7절 "eirene가 지키시리라". 염려의 반대가 기도·감사이고, 그 결과가 평강이다. 이 3단계 구조가 이 장의 핵이다.
- 결 2 — 배움으로서의 자족:** 11절 "배웠다"(emathon)가 중요하다. 자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배운 것이다. 12절의 "비결을 배웠다"가 그 내용을 보여준다.
- 결 3 — 자족의 출처:** 11절 autarkes와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사이의 긴장. 스토아 자족(자기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자족이다 — 출처가 다른 자족이다.

D·다른 본문과의 다리

- 같은 권 안 — 빌 4:6-7 ↔ 빌 1:4 (기도·감사 ↔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 빌 4:19 ↔ 빌 1:6 (채우심 ↔ 착한 일의 완성).
- 다른 권 — 마 6:25-34 (염려하지 말라·하늘 아버지가 아신다), 딤후 6:6 (자족이 큰 이익).
- 빌립보서 흐름 — 4장이 PHP 전체 spine의 도착점이다. 1장(매임 속 복음 진보) → 2장(케노시스) → 3장(배설물·똥대) → 4장(평강·자족)이 수렴한다.

E·한 사람의 의식흐름

- 시작:**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6절)라는 초대를 받는다.
- 멈춤 1:**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7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2:**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11절) 앞에서 멈춘다.
- 멈춤 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13절) 앞에서 멈춘다.
- 끝:** 한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19절)는 약속을 손에 쥐고 일어난다.

F·자족성 점검

- [x] "아무것도 염려 말고 기도·감사로 아뢰라"(6절)
- [x]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eirene)이 마음을 지키시리라"(7절)
- [x]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autarkes)하기를 배웠노라"(11절)
- [x]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13절)
- [x] "나의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19절)

G·구속사 좌표 — 이 장은 어디인가

빌립보서의 spine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의 진보와 자족의 기쁨으로 나아간다"이다. 4장은 그 spine의 마지막 국면이자 destination —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평강"이 실현되는 도착점이다. PHP 전체 흐름(1 매임 중 복음 진보 → 2 케노시스·높아짐 → 3 배설물·풋대 → 4 염려 말라·자족·평강)이 4장에서 수렴한다. 구속사 호(arc)에서, 이 장은 갇힌 자(바울)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기쁨을 살아낸 실증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선언이 사도적 삶의 실례로 나타나는 자리다.

H·운동 벡터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염려(merimnate, 6절) → 기도·감사 → 평강(eirene, 7절) / 형편의 변화(10-12절) → 배움 → 자족(autarkes, 11절) → 능력 주시는 자(13절).

한 화살표로 좁히면, 4장은 염려에서 평강으로, 궁핍에서 자족으로 미는 운동이다. PHP spine의 도착점 국면 —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자족·평강이 가능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출처 선언 위에 완성된다.

I·수면 아래 — 가시적 사건 아래의 본질

표면의 가시적 사건은 바울의 권면과 감사 편지다. 그러나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본질은 **하나님이 어떤 형편에서도 기쁨·평강·자족으로 부르시는 의중**이다. 11절 "배웠다"(emathon)라는 동사는 그 의중이 삶의 경험 안에서 서서히 새겨지는 방식을 드러낸다 —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편을 통과하며 배우는 것이다. PHP 흐름이 비추는 하나님의 심정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노라"(1:8)가 4장에서는 "내가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19절)는 약속으로 온도를 낮추며 완성된다.

J·실존적 부름 — 한 줄의 불씨

나는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 — 그 형편 안에서 자족(autarkes)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그 자족이 나 안에서 나오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게서 나오는가.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초대다. 4장은 독자를 "어떠한 형편"(11절)의 자리에 세우고, 그 형편이 자족·기쁨·평강을 배우는 학교가 될 수 있는가를 묻게 한다. PHP 흐름에서 이 불씨는 빌립보서 전체의 도착점이다 —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2장), 사랑을 배설물로 내려놓고(3장),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평강으로 살아가는"(4장) 것이 PHP spine이 가리키는 destination이다.

빌립보서 전체를 가져갈 한 단어: autarkes(자족) —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자족.

PHP 전체 흐름의 완성: 매임(1장) → 낮아지심(2장) → 배설물·풋대(3장) → 자족·평강(4장) —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받아, 어떤 형편에서도 복음의 진보와 자족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운동이 완성된다.

미해결 질문

빌립보서 4장 — 미해결 질문

관찰 단계에서는 답하지 않고 보존. 묵상·사귄 단계로 이월.

Q1. 7절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킨다(phroureō)"에서 평강이 능동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어떤 메커니즘인가?

- 평강이 주어가 되어 지키는 구조이지만 본문이 더 설명하지 않음.
- 미해결로 보존.

Q2. 11절 "배웠다"(emathō)는 어떤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인가?

- 고난·투옥·궁핍의 경험인지 바울이 명시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3. 3절 "참된 명예를 같이 멘 자"(gnēsie syzyge)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 인물인지 집단인지, 빌립보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음.
- 관찰로는 보류.

Q4.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에서 "모든 것"의 범위는?

- 자족·형편 대처인지 더 넓은 범위인지 맥락이 한정하지 않음.
- 미해결로 머문다.

Q5. 8절의 "참된 것·정직한 것·옳은 것·정결한 것·사랑할 만한 것·칭찬할 만한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 일반 덕목인지 그리스도의 특성인지 본문이 명시하지 않음.
- 묵상으로 이월.

Q6.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약속의 범위와 조건은 무엇인가?

- 물질적인 것인지 전인격적인 것인지 본문이 한정하지 않음.
- 관찰로는 사실(약속 선언)만 보존하고 범위는 미해결로.

이 질문들은 묵상 단계에서 재방문. 관찰 단계는 여기서 멈춘다.